

1.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3장은 니느웨 왕의 조서내용으로 마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사역내용이 자리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읽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역했더니,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이어집니다.
2. 요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요나의 기도와 왕의 조서가 둘러싼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을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조서는 조서이지요. 그리고 그냥 이 둘 사이에 그냥 요나가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기도한 것과 니느웨가 회개한 것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조서가 될 수 없고, 또 조서 역시 기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산 자의 호흡입니다. 반대로, 조서란, 그 반대에 가깝지요. 그래서, 조서를 내린다는 행동은, 죽을 자, 곧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살고자 하는 자의 최후수단인 것입니다.
4. 실제로 오늘의 본문인 니느웨 왕의 조서를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 중반부터 1. 금식, 2. 상복착용, 3. 부르짖음, 4. 강포금지를 명령하고 있지요. 왜 왕이 조서로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40일 후면 멸망당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5절을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른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랬더니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왜? 살아 남기 위해서 이겠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 않기 위해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행을 피하기 위해!
6. 그러나 요나의 기도에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기도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숨쉬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금식 따위를 선포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오직,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는 자원이 있을 뿐이지요.
7. 그러니까, 같은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읽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3장 7절 이하 9절까지 기록된 니느웨 왕의 조서 속에도 묻어나는 것입니다.
8. 9절 이하를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했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자면, “누가 알겠느냐?”, 곧,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단, 희망의 줄을 잡겠다는 소리지요.
9. 그런데 10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왕의 조서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10. 실제로 니스웨에 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40일 쯤이 지나간 것입니다. 회개해서 그 날이 그냥 지나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회개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이지요.
11.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언제나 재를 뒤집어 쓰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재를 뒤집어 쓰거나, 베로 만든 상복을 만들어 입거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12. 요나서 3장을 보시면, 먼저 회개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백성들입니다. 그걸 본 왕이 뒤에서야 국가적으로 그 회개에 동참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설득당한 것입니다. 왕 스스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믿는다가 아니라, 로또에 희망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13. 목사님, 그래도 니스웨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악한 행위에도 똑같이 하시겠는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니스웨처럼 응답하시겠는가?
14.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여주인 사래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우연히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곳 이름이 “브엘라헤로이”이지요. 이 지명은 3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브엘 + 라하이+ 로이”입니다. “브엘”은 샘물이란 뜻이고, “라하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이고, “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5. 도망 중인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가 낳은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는 것이지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그곳을 “브엘라하이로이”라고 불렀습니다.
16. 그래서 이 지명을 살살히 분해해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갈과 그 뱃속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샘”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쭉 읽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구나!”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17. 하갈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갈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에 비친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18. 100여년 전,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께서, 회중 앞에서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에 이 운동이 퍼졌습니다. 니스웨처럼 그것을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평양 뿐만 아니라 원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일어났지요. 심지어 독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9. 그렇게 해서 100년이 지났을 때, 한국교회는 그 100주기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2007년). “평양어게인”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자고! 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회개였을까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분께서 감찰하시면, 100년 만에 또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20.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한 번 돈 다음, 한국 기독교는 더 깊은 침체와 쇠락의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는데! 서양 역시, 종교개혁 이래로 5백년 만에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21. 무슨 오류입니까? 일반화의 오류!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틀 속에 가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깊은 편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량한 한 사람의 경험 속에 넣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니느웨 왕이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3.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치트키가 항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통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럴 지는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24.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신 영원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펼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고!

25.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넘어가시려면, 그들이 행한 그 많은 회개의 행위들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문설주에 바른 어린양의 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보편적 방법입니다.

26.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리시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